

金星社 高解像 비디오테이프 개발

現代自動車

성능·외관 향상 뉴스텔라 시판

▲金星社

금성사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슈퍼 VHS 방식의 고해상도 비디오 테이프를 개발, 내년 초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.

금성사는 지난 9월 S-VHS 방식의 비디오 테이프를 자체 기술진에 의해 개발하고 월 30만권 생산 규모의 생산 설비를 도입, 시험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.

▲現代自動車

현대자동차는 6일 기존 스텔라 승용차의 성능과 외관을 대폭 향상시킨 「뉴 스텔라」를 개발, 시판에 들어갔다.

피스톤 등 연비관련 장치를 많이 보완한 이차는 인슐레이터(방진제)를 사용, 운행때 엔진소리 등 소음을 최소화시키면서 제동력 향상을 위한 브레이크 유압을 높였다.

▲三星電子

삼성전자는 컬러 TV 한 대로 VCR와 오디오 기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컬러 TV 세트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. 이 컬러 TV 세트 제품은 또 TV 화면을 사람이 앉아있는 방향에 맞게 상하 10도 좌우 60도 범위 내에서 파

음대로 리모콘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.

삼성전자는 7일 리모콘으로 움직이는 컬러 TV에 VCR

三星電子

VCR·오디오 기능 TV 개발

三星화성

무공해 LLDPE수축필름 개발

現代電子

차세대尖端전화기 개발

▲三成화성

三成화성이 이탈리아 로터맥社와 기술 제휴로 무공해인 LLDPE(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) 열수축 필름을 개발, 대량 생산에 나섰다.

3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가 개발한 이 필름은 사용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열과 햇빛 등에 의해 녹아 없어지는 무공해 필름이다.

이 회사는 내년 초부터 대량생산기로 하고 20억 원을 투입,城南에 연 6백톤 규모의 필름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.

三成은 생산량의 80%를 미국 등으로 수출하고 나머지 20%는 내수에 공급할 계획이다.

▲現代電子

현대전자는 최근 국내 최초로 음성인식 다이얼 전화기의 개발에 성공했다.

현대전자가 1년 여의 개발기간을 거쳐 개발해낸 음성인식 다이얼전화기(모델명 HD-F 89)는 다이얼 버튼을 눌러야만 하는 일반전화기와는 달리 송수화기를 들고 미리 입력시켜둔 상대방의 명칭을 음성으로 호출만 하면되는 차세대 첨단 전화기이다. (♣)

CDP 등을 세트에 연결한 AV 센터를 상품화, 앙상블이라는 이름의 90만원대 신제품을 국내 시장에 내놓았다고 발표했다.